

'05. 3. 16 ~ 3. 17 (2일간)

『第237回 臨時會』
道 政 質 問 書

忠 清 北 道 議 會

教育社會委員會

張準浩議員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권영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원종 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동군 제1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장준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 및 지방분권 등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우리 도에서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 국민들에게 우리도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된, 뜻 깊은 한 해 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해의 국가적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이와 병행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유치, 전국 장애인 및 전국소년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 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지수를 드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10여년 이상 도정 발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긍정과 부정, 높고 낮음, 발전과 퇴보 등을 가늠하고

도민들이 우리에게 위임해준 역할과 기능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나 부족한점이 없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은 의정활동을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의적으로 꼭 짚어봐야 할 내용과 도정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먼저 「전국장애인체전」 및 「전국 소년체전」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는 제85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 한해였습니다. 이는 이원종 도지사님과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은 지난해에 이어 제25회 전국장애인 체육 대회와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10~5.13(4일간), 5.28~5.31(4일간) 도내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러한 전국 단위의 행사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도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체육시설의 확충과 꿈나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다시 한번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하며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 드립니다.

첫째, 지난해 전국체전이 우리 도에 미친 영향과 성과,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체전 지원팀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금년 양 체전의 성과 예측은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둘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타시도와 차별화된 행사계획이 수립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성공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셋째, 특히 장애인체전은 장애인 분야에 대한 이정표를 만드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등 특별한 대책 마련과

넷째, 소년체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게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관별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기관별 추진상황

다섯째, 양 체전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 할 것으로 보는데 도지사와 교육감 소관의 홍보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충청북도 종합계획」의 남부권 발전 전략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종합계획」 및 2005년도 충청북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 보면 도민모두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로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토융합의 SOC확충과 지역균형개발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첨단신산업 육성을 전략 목표로 중장기발전 전략에 의한 지역균형 개발 촉진, 사통팔달의 교통망 확충 등을 이행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4대 발전축의 육성·개발을 위하여 충북 중부권 및 북부권에는

첨단지식산업벨트로 남부권에는 바이오 농업특화 벨트로 육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의 흐름이 글로벌화 되어 감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때 향후 10년 후에는 중부권과 북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부권의 지역경제는 더욱더 피폐해 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남부권에도 바이오 농업 특화 벨트를 추진하면서 부가하여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추진하였을 때

향후 10년후 중부와 북부권을 비교하여 남부권의 농촌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부 3축 보완 고속도로 조기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해 충주와 문경, 상주를 연결하는 중부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그 주변지역의 유통, 관광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망확충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 그 동안 남부지역의 낙후로 농촌경제가 궁핍해 지고 이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 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남부지역의 교통망이 조기에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남부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남부지역이 낙후된 것을 조기에 획기적으로 탈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부고속도로 증평에서 미원, 보은, 영동, 무주, 전주 간을 연결하는 남부 3축 보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 하므로써,

시들어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본 사업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하고 조기에 착공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 종합계획 및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 업무 계획에 의거 4대광역권개발계획에 의한 균형 개발 촉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보은, 옥천, 영동군에 키 낮은 사과원 조성 등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과일 저장 시설 등 유통시설 종합지원, 버섯 재배사 49동 설치 등 농업 기반시설 지원에 829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누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관심을 갖고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829억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본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투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도는 전통적인 農業道이며 「청정 충북건설」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쾌적한 환경추구, 안전성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의 농업은 집약적 증산 위주의 농축산물 생산방식에 비료, 농약 등 농자재의 과다 투입과

부적절한 축산 분뇨처리로 인해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도의 케츠프레이즈와 함께 시대적,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볼 때 우리 도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 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유기농 생산 방식은 중·소농 규모인 家族農 중심의 유형과 청정충북을 지향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합한 영농 형태로서

친환경 농업의 조기 육성은 우리도의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의 친환경농업의 현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업은 1991년 농림부에 유기농업발전
기획단 설치를 필두로 1996년 7월에 농림부에서
「환경농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97년 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00년도에
친환경 농업 육성법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법에 근거하여 농림부에서는 2001년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에서는 이를 실천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천계획이 5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발전을 이루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결과를 다음 중기계획에 반영시켜 충청북도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관계관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도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실천계획에 의거 투입하고 있는 재원(내역서는 추후 제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과 토양 개량제 등의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친환경 임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등 6개 종류의 산림환경 분야에 651억 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별 추진실적 과 추진사업별 부진 내용 및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셋째, 2006년부터 시행하는 친환경농업 중·장기 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2 만불 시대를 목전에 두고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웰빙 문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대세로 흐르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및 먹거리 개발사업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내륙의 도로서 한반도 이남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사통 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전국에서 우리 도를 방문하기에 지리적으로 매우 용이한 면이 있으며,

또한, 청정 충북과 청풍명월이라는 맑고 깨끗한 고장이라는 이미지가 전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시대적, 지리적, 환경적 요인을 볼 때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특히, 최근 서울이나 타지방에서 오는 손님을 대할 때면 우리 도의 이름난 음식이 무엇인냐는 질문을

받고는 한참을 생각해봐도 마땅한 음식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만이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에서 전국유명 향토음식개발을 위한 시책 즉 매년 시행하는 향토음식축제 및 충청북도와 시군 의 모범업소 지정 시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본 의원의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에 대한 견해는 우선 음식의 맛과 내부시설 등 내적 요인과,

지리적 위치와 주변의 환경적요인, 역사적 접근성과 관련한 외적요인을 구분하여야 하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시책은 내적 요인의 개발에만 치중해 왔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제는 외적요인에 치중하여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확인한 타시도에 위치해 있는 「유명 음식촌 브랜드」의 사례를 거울삼아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별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맞는 「유명 음식촌 브랜드」(예시참고)를 용역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타시도에서 성업중인 유명음식촌 현황 >

① 포천 이동갈비와 이동막걸리

지리적으로는 군부대가 인접해 있으며 현재 집단으로 20여가구가 운집하여 성업중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이유는 군부대의 방문객들이 면회시 갈비를 먹고 난 이후 입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으며 포천 막걸리의 경우 군인들이 군 생활에 향수와 함께 막걸리에 대한 홍보를 전국적으로 전파하게 되었다고 하며, 현재 포천시에서는 홍보 책자 등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음

② 춘천 막국수의 경우

춘천시내에 많은 막국수집이 집단으로 성업중이며,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은 순천 등 강원도 지역에는 메밀의 집산지로서 현재 춘천지역에 30여년 전에 메밀을 재료로한 막국수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주변에 막국수 집이 많이 들어서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으며, 춘천시에서 막국수 축제를 개최해 주고 있으며 또한 홈페이지 제작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③ 전북고창의 풍천 장어의 경우

전라북도 고창군 장녕강 주변에 20여개의 장어집이 성업중이며 선운사 도솔암에서 서해 바다를 흘러가는 지점(장녕강) 즉 바닷물과 민물이 합수하는 지점에 서식하는 장어의 육질이 가장 맛이 있다고 하여 많은 전국의 미식가들이 찾고 있으며, 조선시대 한량들이 풍천 장어를 먹는 것이 소원 이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몇 년 전부터 수산물축제를 개최 하고 있음

<유명음식촌 브랜드 개발(안)에시> (괴산의 올갱이촌)

괴산은 지리적으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금강 상류 및 수려한 화양동 국립원이 위치해 있어 수질이 맑고 깨끗한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으며, 수질이 오염이 안 된 깨끗한 지역에서만 살고 있는 올갱이가 살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올갱이 촌 개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특히, 올갱이의 특성이 간 질환에 특효가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많은 미식가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측됨

□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공사를 하던중 그 이듬해 발생한 태풍 「매미」로 재 피해를 본 곳이 영동군내 하천 등 6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복구계획서에 따르면 이중 영동군 상촌면 도대리에 위치한 고자천 도대제 등 4개소에 피해 금액이 총 5억 9천 8백만원이며 복구 금액이 무려 16억 2천 2백만원으로 증액 되었는데

이는 당초 수해복구 계획 수립시 완벽한 실시설계를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청소관 시설공사 관련 질문입니다.

<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시행된 3억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공사현황 >

년도별 /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건수(건)	53	13	23	17
계약업체수(업체)	53	13	23	17
당초계약금액(백만원)	60,593	24,581	23,442	12,570
계약변경금액(백만원)	66,200	26,101	26,071	14,028
증감액(백만원)	5,607	1,520	2,629	1,458
건당평균증감액(백만원)	105	117	114	86
당초계약금액대비10%이상증감건(건)	15	2	8	5
단위사업당 가장 많이증가한비율(%)	46.1	26.9	25.5	46.1

※ 2004년도는 10월 31현재 상황임

위의 표는 지난해 행정 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로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시행된 3억 이상 공사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된 공사현황입니다.

이의 자료를 보면 3년간 53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초 계약금액 총 6백 5억 9,300만원중 56억 7백만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액 총 662억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증·개축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건당 평균 증액한 것이 1억 5백만원이고 비율을 보면 사업단위당 10%이상 증액한 것이 15개 사업이며 많게는 46.1%까지 공사비를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의 사유를 보면 비상계단 추가시공, 오수관로 변경, 다목적 교실 물량 증가, 화장실 물량증가 무대장치, 교문 추가공사, 배수로 추가사업 등 사유가 다양하며,

주로 사업물량을 추가 설치하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모두 당초 사업계약자의 변경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설계변경 관련 규정을 보면 설계 당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를 당초 설계 내용대로 시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설계를

변경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상기해 볼 때,

교육청에서 실시한 설계 변경의 당위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동 시행령 제6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회계예규)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설계변경 대상은 공사무량의 증·감 발생,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 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 등 당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를 당초 설계 내용대로 시행 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설계를 변경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이러한 설계변경을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하므로써 야기되는 문제는 우선 사업비 증액으로 계약업자의 추가 이익발생이 예상되므로

건설사업자와 결탁했다는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어 청렴한 공무원의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고, 부정부패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른 누더기 공사로 건설한 공사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력 낭비와 도민의 세금을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데 큰 문제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 드립니다.

첫째, 추가공사는 이미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설계를 변경하여 온갖 문제를 야기토록 하는 등 관례적으로 매년 같은 내용의 사유로 추가공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추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각종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자체 감사반을 편성하여 특별 감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자체감사가 어렵다면 감사원에 의뢰하던지 아니면 도의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 감사를 실시하여 행·재정 낭비 및 계약업자와 결탁 여부,

제도개선 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내 학교 및 학원의 스쿨버스 운행 관련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사설 학원에서 통학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급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의 버스 1대당 운전기사를 1내지 2명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1명을 두고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운전자가 근무를 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불편이 예상되는바 대체 인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둘째, 도내 각급 사설 학원의 셔틀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와 지입의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도내 학생들이 이들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체 통학차량 운행 실태에 대한 교육청 자료를 보면 도내 총 9개교 중 충주의 남한강 및 오석초교의 학생들은 공군부대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충주의 덕신초, 청원군 수성초 구성분교, 영동의 학산 중·고교, 진천의 학성초, 문상초, 금구초, 음성의 오선초교는 학부모들과 동문들이 차량을 구입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총 559명이고 학교당 평균 62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 대부분의 학교에 통학차량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해 볼 때 주로 학교환경이 매우 열악한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는 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자율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이따한 이유를 들어도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농촌 경제 활성화 즉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 지역의 학교가 도시지역의 학교보다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비교 우위에 서야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부형들과 동문들이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조기에 마련되어야 할 것 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와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의원, 공직자, 도민
등 우리 모두 각자 맡은바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세계속에서 가장 으뜸된 충복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